

클래식 명곡 산책 - 22 - 여러 협주곡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음악 듣기
vo.la/Tq9y

지난 4개월간 협주곡을 소개해왔습니다. 협주곡은 독주자의 화려함과 관현악의 풍부함을 모두 즐길 수 있고, 또한 독주 선율이 명확하여 집중도와 몰입감이 높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중에는 협주곡을 통해 클래식의 맛과 멋을 알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협주곡을 소개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2년간 소개하지 않았던 악기인 하프와 색소폰, 트롬본,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악기가 독주로 등장하는 협주곡을 골라보았습니다. 클래식의 색다른 매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1685~1759)

: 하프 협주곡 내림나장조, 작품번호 4-6 (1736)

Georg Friedrich Händel : Harp Concerto in Bb major, O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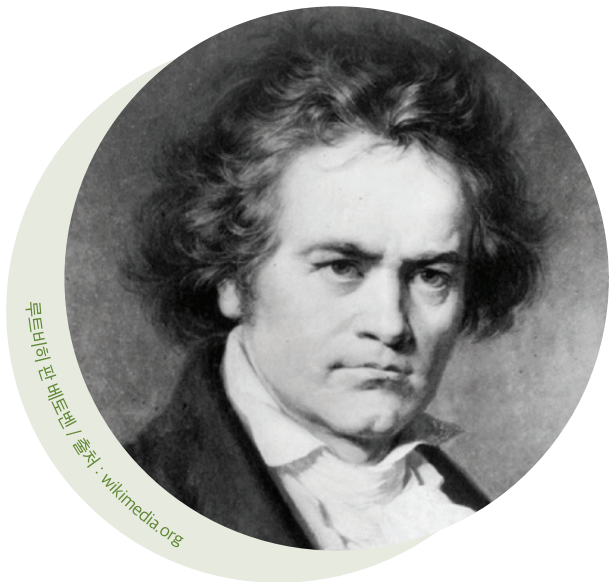
18세기 중엽 바로크의 끝자락에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로 크게 성공했던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은 하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건반 작품들을 하프를 위해 편곡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협주곡도 남겼죠. 헨델이 이렇게 하프를 가까이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프를 많이 보고 들어온 덕택이었습니다. 1692년에 헨델은 그의 첫 스승이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차호(Friedrich Wilhelm Zachow : 1663~1712)의 칸타타를 사보한 적이 있었는데, 헨델의 자필로서 가장 초기의 것 중 하나인 이 악보에도 하프가 포함되어있었죠.

하지만 헨델이 본격적으로 하프를 위해 곡을 쓰기 시작한 것

은 1717년에 웨일즈 출신의 하프리스트 윌리엄 파웰을 고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헨델의 전기작가인 존 호킨스는 이즈음에 작곡된 오라토리오 <에스더>(1718)에 등장하는 ‘즐거운 연주를 위해 하프를 조율하라’는 파웰을 위해 작곡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후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1724) 등 여러 작품에서 하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헨델의 하프 작품은 <하프 협주곡 내림나장조>(1736)입니다. 이 곡은 하프 협주곡으로서 초연되었지만, 1738년에 <여섯 개의 오르간 협주곡집, Op. 4>의 마지막 곡으로서 출판되었습니다. 호킨스는 이 곡에 대해서도 “다섯 번째 협주곡은 하프 레슨을 위한 것으로, 훌륭한 하프 연주자인 어린 파웰을 위해 작곡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호킨스가 여섯 번째 협주곡을 다섯 번째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다섯 번째 오르간 협주곡도 이전에 하프 협주곡이었던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 출처: wikipedia.org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

: 삼중협주곡 다장조, 작품번호 56 (1804)

Ludwig van Beethoven :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 56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교향곡 3번 '영웅'>(1803)이 마무리되고 있던 때에,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이 교향곡의 정신을 이을만한 작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04년 여름에 완성된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과 1806년에 작곡된 '라주모프스키 사중주'(7~9번)가 이 시기의 이러한 영웅적인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 대표작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삼중협주곡>(1804)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삼중협주곡>은 제법 빨리 완성되어 작곡된 해에 자신의 곡을 출판하던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에 출판 의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이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라고 어필했음에도, 출판사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결국, 오페라 <피델리오> 때문에 잠시 뒷전에 밀렸다가 1807년에 '예술과 산업'이라는 곳에서 출판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 4월에야 초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초연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베토벤 사후에 진가를 인정받아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악장은 베토벤의 협주곡 중에서 가장 긴 악장입니다. 저음 현악기가 매우 여리게 행진곡풍으로 첫 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합니다. 독주자 중에서 첼로가 먼저 등장하며, 바이올린과 경쟁하듯 평행으로 진행하다가 피아노가 등장하며 평정됩니다. 느

린 2악장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함께 연주하며, 피아노는 이들을 반주합니다. 3악장은 2악장과 쉼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폴란드풍의 론도'라는 지시어에 맞게 폴로네이즈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1833~97)

: 이중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02 (1887)

Johannes Brahms : Double Concerto in A minor, Op. 102

브람스의 마지막 관현악 작품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은 연주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지내던 1887년 8월 초에 완성되었습니다. 철저한 신고전주의자였던 브람스답게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고전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곡은, 그의 오랜 친구였던 요제프 요하임의 바이올린과 로베르트 하우스만의 첼로로 그해 10월 18일 쾰른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브람스와 요하임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요하임이 이혼을 할 때 브람스가 요하임이 아닌 그의 부인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협주곡은 요하임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의 의미도 있습니다. 요하임을 상징하는 F(파)-A(라)-E(미) 주제가 사용된 것도 이 때문이죠. 이 주제는 요하임의 삶의 모토였던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Frei aber einsam)를 상징하는 것으로, 과거에도 요하임을 위한 여러 곡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곡은 초연 당시 많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요하임과 하우스만, 그리고 브람스의 지휘로 여러 차례 연주가 이루어졌지만, 리하르트 슈페르는 "브람스의 가장 지루한 작품"이라고 비판



요하네스 브람스 / 출처: britannica.com

했으며, 브람스의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던 슈만의 미망인 클라라 슈만조차도 독주악기가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브람스의 작품 중 하나로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역시 뭐든지 두고 볼 일인가 봅니다.



트롬본 / 출처 : yandasmusic.com

다뤘스 미요(1892~1974) : 트롬본과 현을 위한 ‘겨울의 소협주곡’, 작품번호 327 (1953)

Darius Milhaud : Concertino d'hiver for trombone and strings, Op. 327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과거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바그너가 연출보다는 노래를 우위에 두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반대했다면, 드뷔시는 바그너의 지나치게 무거운 화음과 복잡한 구조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뷔시의 후배들은 바그너의 무계감과 드뷔시의 모호함을 모두 반대했죠. 이는 ‘프랑스 6인조’(Les Six)라고 알려진 이들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었던 다뤘스 미요는 선율, 화음, 구조 등을 명확하게 작곡했으며,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투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트롬본을 위한 <겨울의 소협주곡>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곡은 세 악장이 쉽없이 이어지면서 연말연시의 축제와 겨울의 스산함을 모두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곡의 트롬본 연주를 듣고 있으면, 어느덧 겨울은 따스한 재미가 있는 계절임을 깨닫게 되죠. 트롬본은 오늘날 겨울의 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악기임을 깨닫게 합니다.

프랑시스 폴렝크(1899~1963)

: 오르간 협주곡 사단조 (1938)

Francis Poulenc : Organ Concerto in G minor

역시 ‘프랑스 6인조’의 일원이었던 프랑시스 폴렝크의 <오르간 협주곡>은 오르간과 현악, 그리고 팀파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르간이 독주 악기면서 관악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죠. 폴렝크는 자신을 종교적 진지함과 유희적인 유머를 가진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곡은 오르간의 종교적 이미지와 기악의 유희적 이미지를 모두 갖춘 야누스적 폴렝크의 모습을 잘 담은 작품입니다. 음악이 시작하면 독주 오르간이 장중한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선율은 곡 전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르간의 스톱(건반 양옆에 있는 음색을 조절하는 버튼)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오르간의 화려한 음색과 그 효과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상 포인트입니다. 고전적인 협주곡과 달리 전체가 환상곡처럼 쉽없이 연주됩니다.



오르간 / 출처 : casavant.ca



프랑스 6인조. 미요는 가장 오른쪽, 폴렝크는 가장 왼쪽 / 출처 : rus.is



마이클 나이먼(*1944)

: 색소폰 협주곡 '꿀벌이 춤추는 곳에' (1991)

Michael Nyman : Where the Bee Dances

영국의 작곡가 마이클 나이먼은 20대 중반에 해리스 버트휘슬의 무대 작품의 대본을 쓴 적이 있으며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악 평론가로도 활동했는데, 1968년에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말은 테리 라일리와의 스티브 라이히, 필립 글래스의 음악에 곧바로 이론적인 토대로 적용되면서 영향력 있는 트렌드로 발전하였고, 나이먼 자신도 이 음악의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먼이 작곡가로서 알려진 것에는 영화음악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영국식 정원의 살인사건'과 '프로스페로의 책' 등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의 영화에서 바로크 음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죠. 그 후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피아노'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으며, 할리우드에도 진출하여 '가타카' 등 여러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이클 나이먼 밴드'를 위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여러 협주곡과 네 개의 현악사중주곡, 다수의 오페라 등 전통적인 장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을 위한 단악장 협주곡 <꿀벌이 춤을 추는 곳에>는 마이클 나이먼 밴드의 색소폰 연주자였던 존 할을 위해 1991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동료들에게 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등글게 도는

춤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화인 '프로스페로의 책'을 위해 작곡한 음악 중에 '꿀벌이 빨아들이는 곳에'(Where the bee sucks)에 나오는 음악으로서 협주곡에 산발적으로 인용되어있다."

'꿀벌이 빨아들이는 곳에'는 셰익스피어의 '태풍'의 5막 1장에 등장하는 아리엘의 노래입니다. 영화 '프로스페로의 책'에서 이 구절이 등장하는 장면을 위하여 작곡된 음악이 <꿀벌이 춤을 추는 곳에>에 사용된 것이죠. 작곡가의 설명과 같이 이 작품에서 꿀벌의 춤과 같이 회전하는 멜로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멜로디는 독주자의 기량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빠르기와 폭넓은 표현력을 요구하며 다채로운 표정을 연출하죠. 또한, 관현악에서 네 개의 화음이 화음 오스티나토를 만들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미니멀리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



색소폰 / 출처 : wcsa.world